

# 우리시대 '한권의 책'이 된 사람들

본지 박성천 기자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펴내



조정래 소설가

조정래, 공지영, 은희경, 안도현, 최재천, 김병중, 박금주, 이주향...

이들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 시인, 학자, 문화예술인들이다. 이들을 묶어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책이 아닐까 싶다.

우리 시대 작가, 지식인들의 책에 얽힌 추억과 삶을 빛나게 했던 순간들을 갈무리한 책이 나왔다. 소설가인 본지 박성천 기자가 펴낸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미디스북스)는 지난 2년여에 걸쳐 광주일보 문화예술전문지 '예향'에 연재되었던 23인의 인터뷰를 묶어낸 것이다.

책은 2013년 4월에 복간한 '예향'의



박성천 기자

은 날선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공작가는 "가혹하다 싶을 만큼 인생의 무게가 무거웠지만 작가에게는 역시 소설이 답이었다"고 고백한다.

이밖에 책에는 역사학자 이덕일, 출판인 김연호, 사진작가 배병우, 건축가 송효상, 문필가 유시민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지식인들의 책과 예술에 관한 이야기도 수록돼 있다.

박 기자는 "작가들의 인생을 들여다 보면 이들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었다"면서 "그 같은 성찰은 독자들에게도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추천사를 쓴 화가인 김병중 서울대 교수는 "박성천의 글은 잘 지어진 단아한 집 한 채를 연상케 한다. 구조와 품새 그리고 격조에 있어서 그렇다. 더구나 문사철의 내공을 바탕으로 하여 씌어지는 것이기에 유독 그 울림과 여운이 길다"고 평한다.

한편 저자는 전남대 영문과와 동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문학박사)을 졸업했으며 2000년 전남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과 2006년 소설시대 신인상 수상을 계기로 소설 창작을 시작했다. 문학기자이자 '예향'기자로 활동하면서 전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인문서 '갈 같은 세상의 온다', 연극서 '해한의 세계 문운대 문학 연구', '스토리의 변주와 서사의 자장', '짧은 삶 긴 여백 시인 고경희' 등을 펴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김진수기자 jeans@

## 대한민국 대표 작가·시인·학자·문화예술인...

## 문화예술전문지 '예향' 연재 23인 인터뷰 묶어

## 열정·도전정신...치열한 삶과 예술세계 조명



공지영 작가

첫 출판 관련 결실로, 저자는 '예향'을 매개로 만났던 소설가, 시인, 지식인과 문화예술인들의 삶과 관련된 책 이야기에 초점을 둔다. 본지 사진부 최현배·김진수 기자의 감각적이며 인문적 향기가 나는 사진도 다수 수록돼 있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무엇이 그들을 작가로 살아가도록 이끌었는지 내밀한 고백을 들을 수 있다.

"그들에게선 저마다 향기가 났던 것

같다. 담백하면서도 은은한 향. 아니 역설적으로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 무향(無香)은 아마도 자신의 길을 넘어, 누군가의 인생에 한줄기 빛을 제시하는 이들에게서 배어나오는 은근한 미의 발현이었던 것 같다."

저자는 책에 언급된 명사들이 열정과 도전 정신, 창의적인 마인드로 저마다의 분야에서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조정래 작가 하면 떠오르는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성실성과 치열함이다. "작가는 발로 쓴다"는 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설가다.

"정글만리"를 준비하며 중국 관련 기사를 스크랩한 수첩이 90권, 현지 취재에서 얻은 정보를 기록한 수첩이 20권, 여기에 중국 관련 책을 80권 읽었습니다. 그동안 8차례나 현지를 오가며 취재를 했고, 갈 때마다 두 달씩 머무르며 현지 분위기를 파악했지요."

또한 조정래 작가는 소설의 첫 문장을 쓸 때마다 파지만 30여 장 이상을 버린다고 한다. 원고지 1장은 불과 1만5000다. 원고지 1장은 불과 1만5000다. 원고지 1장은 불과 1만5000다. 원고지 1장은 불과 1만5000다.

공지영 작가도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세를 떨쳤지만 지난 대선 이후 침체기에 빠져 있었다. 소신 발언으로 적지 않



이주향 교수



김병중 화백



최재천 교수



안도현 시인



은희경 작가

## '스페이스 오브 조이'...이창훈 개인전

### 27일까지 휴광 갤러리

한국화가 이창훈 작가가 27일까지 휴광갤러리에서 '스페이스 오브 조이(Space of joy)'를 주제로 여섯번째 개인전을 연다.

한지 위에 분채를 통해 색의 조화를 보여주는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Space of joy' 시리즈 등 작품 80점을 선보인다.

이씨의 작품은 대부분 배경이 붉은색이다. 오방색 중 하나인 붉은색은 과학적으로는 채도가 가장 높고, 심리적으로는 사랑과 자유의 색이라고 이씨는 설명한다. 창조와 정열, 애정과 적극성을 내포하는 붉은색을 통해 작품을 한층 더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페이스 오브 조이' 시리즈는 즐거운 행동을 하고있지만 얼굴표정은 슬픈 인물이 등장한다. 물질과 자본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상실과 공허감을 지닌 사람들을 묘사했다. 고향과 가족에게 떨어져 새로운 환



'Space of joy'

경에 적응해야하는 우리 사회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갖자는 메시지를 던진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중앙대 대학원 한국화과를 졸업한 이씨는 6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5 광주문화예술상, 2007 전남 예술상, 2000 한국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360-31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남도 문인화 현재와 미래 한자리서 만난다

### 광주·전남 문인화협회전...11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남도 문인화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91명이 참여하는 '제22회 광주·전남 문인화협회전'이 1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개최된다.

광주·전남문인화협회(회장 이병오)는 지난 1992년 박행보, 허의득, 장찬홍 등 20여명이 주축이 돼 발족한 단체다. 소치, 미산, 의재, 남농으로 이어진 남도 문인화의 맥을 잇고 있으며 한국문인화협회 설립을 이끌기도 했다. 협회는 매년 회원전을 열어 작품세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금봉 박행보, 계산 장찬홍, 우송현 김영삼 등 원로작가를 비롯해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돼 지역 문인화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다.

주요 참여작가는 박행보·장찬홍·김영삼·한



박행보 작 '마음의 방향'

상운·구지회·강영화·강인숙·고경숙·고재환·김계수·기경숙·김귀재·김남기·김남주·김동신·김명용·김선화·김성남·김세린·김승자·김수영·김수연·김양숙·김연희·김옥진·김은자·김은중·김재홍 등이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미술상' 후보자 30일까지 접수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우재길)는 8월 '제21회 광주미술상'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대상은 광주·전남 출신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로서 만28~45세 이하 청년작가 또는 단체다. 응모자들은 원서를 인터넷(www.webhard.co.kr 아이디 : gd1403 패스워드 : 1403)에서 내려받아 포트폴리오, 발표용 CD 등을 제출해야한다.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사무국(광주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83층)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본 심사 및 시상식은 12월 8일 오후 3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린다. 수상자는 상패와 함께 창작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 1995년 제정된 광주미술상은 지역 원로, 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 문의 010-2608-273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한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